

2019년산 쌀 가격 계절진폭 발생 전망

연간시장공급물량
4.9% 감소



정부,
태풍 피해곡 매입



도정수율 감소



금년 쌀 생산량 374만 4천 톤

작황 부진 등으로 쌀 생산량 전년보다 3.2% 감소

- 통계청 발표(11. 12.)에 따르면,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2만 4천 톤 감소(3.2%)한 374만 4천 톤으로 집계되었다.
 - 벼 재배면적은 72만 9,814ha로 8월 발표치보다 6ha 감소하였으며, 쌀 단수는 태풍 피해가 더해지면서 예상생산량 발표(10.15.) 때 보다 5kg 감소한 10a당 513kg으로 나타났다.
 - 금년 쌀 생산량은 냉해 피해로 생산이 급감했던 1980년(355만 톤)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치이다.

| 2019년산 쌀 생산량 |

	2018년산(A)	2019년산(B)	차이	
			증감(B-A)	증감률(B/A)
면적(천ha)	738	730	-8	-1.1
단수(kg/10a)	524	513	-11	-2.2
생산량(천 톤)	3,868	3,744	-124	-3.2

자료: 통계청

2019년산 벼 도정수율 전년보다 감소 전망

-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순까지 매입된 2019년산 벼의 도정수율을 조사한 결과, 전년 동기 대비 약 1%p 감소한 70.7%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.
 - 특히, 태풍 피해가 컸던 호남과 충남지역의 수율 감소폭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컸다.

| 지역별 산지유통업체의 도정수율 변화 |

단위: %

구 분	2018년산(A)	2019년산(B)
강원	68.7	68.3
경기	71.5	71.3
경남	71.6	71.2
경북	71.5	71.5
전남	71.3	70.1
전북	72.2	71.0
충남	71.9	70.8
충북	71.9	71.7
평균	71.4	70.7

주 1) 향후 농가로부터 매입되는 벼의 상태에 따라 도정수율은 변화될 여지 존재함.
2) 지역 및 업체마다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.
자료: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(11.6.~11.14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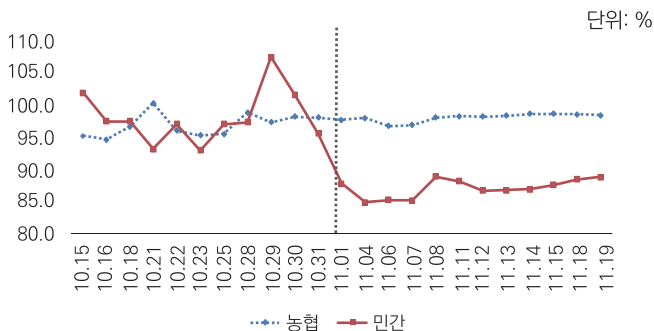
정부는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피해벼 매입을 진행 중이며, 11월 19일 기준으로 약 1만 7천 톤이 매입되었다. 도별로 보면, 호남 매입량이 전체 피해벼 매입량의 80.8%(1만 3천 톤)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영남이 14.5%(2천 톤)로 나타났다.

민간RPC, 벼 매입 부진

11월 민간RPC 벼 평균매입량 전년의 87.0% 수준

-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산지유통업체의 벼 자체매입량(정부매입량 제외)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농협의 11월 벼 평균(11.1~19.) 자체매입량은 전년의 97.8% 수준으로 10월(96.8%)과 비슷하나 민간RPC는 10월보다 10.9%p 감소한 87.0%로 나타났다.
 -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곡 매입현황을 조사한 결과(11월 중순 기준, 도별 면적 가중치 적용)에서도 전년보다 '줄었다'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59.3%로 절반을 상회하였고, '비슷하다'는 비중이 28.9%로 조사되었다.
 - 이는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이 출하를 조절한데다 민간RPC보다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협으로의 출하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- 정부매입량을 포함한 2019년산 전체 벼 매입량(11. 19. 기준)은 계획량 대비 74.3% 수준인 168만 9천 톤이다.

업체별 벼 매입량 전년 동기 대비 수준



주: 정부매입은 공공비축미와 APTERR 물량으로 구성됨.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

2019년산 벼 매입 실적(11. 19. 기준)

단위: 천 톤, %

	2018년 (A)	2019년 (B)	계획량 (C)	전년 동기 대비		계획량 대비 (B/C)
				증감 (B-A)	증감률 (B/A)	
합계	1,729	1,689	2,272	-40	-2.3	74.3
정부매입	196	203	350	7	3.7	57.9
산지유통업체 자체매입	1,533	1,486	1,922	-48	-3.1	77.3

산지유통업체 신곡 재고 전년보다 감소

- 산지유통업체의 재고(11. 10. 기준)는 114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.
 - 신곡 재고량은 매입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만 6천 톤 줄어든 111만 4천 톤이고, 구곡 재고량은 전년보다 1만 9천 톤 증가한 2만 6천 톤이다.

산지유통업체 재고(11. 10. 기준)

단위: 천 톤

	2018년(A)	2019년(B)	증감(B-A)
신곡	1,139	1,114	-26
구곡	7	26	19
합계	1,146	1,140	-6

자료: 농협중앙회, 한국RPC협회, 전국RPC연합회, 대한곡물협회

산지 쌀 가격 상승세 전환

11월 들어 전년과의 가격 격차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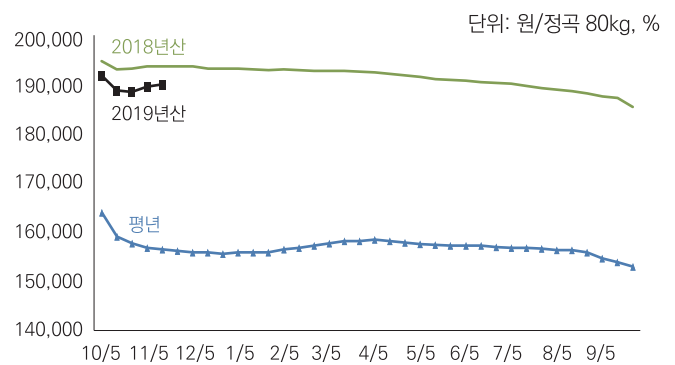
- 11월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.9% 낮은 19만 88원/80kg 이었다.
 - 수확기 약보합세가 유지되던 산지 쌀 가격은 11월 5일과 15일에 전기보다 각각 0.6%, 0.3% 상승하였다. 이는 생산량 감소 등으로 10월부터 상승한 원료곡 가격이 정곡 가격에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 - 전년 동기 대비 2.4%(10.25. 기준)까지 격차가 커졌던 산지 쌀 가격은 11월 15일 기준, 1.9% 수준으로 좁혀졌다.
-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1월 벼 매입가격을 조사한 결과(11월 중순), 매입가격(사후정산업체 제외)은 10월 평균 매입가격보다 상승한 6만 699원/40kg으로 나타났다.

|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 추이 |

	평년	2018년산 (A)	2019년산 (B)	전년 동기 대비 (B/A)
10월 5일	164,044	194,772	191,912	-1.5
10월 15일	159,177	193,008	188,796	-2.2
10월 25일	157,795	193,188	188,476	-2.4
11월 5일	156,872	193,696	189,528	-2.2
11월 15일	156,533	193,684	190,088	-1.9
수확기 평균가격 (10월 5일 ~11월 15일)	158,884	193,670	189,760	-2.0

주: 평년가격은 최근 5년 중 최대, 최소를 제외한 가격임.
자료: 통계청

|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 추이



산지유통업체 향후 쌀 판매가격 인상 의향 높아

-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쌀 판매가격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, 응답 업체의 40.2%가 수확기 내에 최근 판매가격(11월 5일)보다 인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‘인상’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생산 및 도정수율 감소를 가격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꼽았고, ‘유지’라고 응답한 업체는 소비지 거래처 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.

| 산지유통업체 수확기 내 쌀 판매가격 변경 여부 |

인상	유지	인하
40.2	53.3	6.5

단위: %

주: 도별 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.
자료: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(11.6.~11.14.)

2019년산 쌀 가격 계절진폭 발생 전망

수확기 벼 가격 6만 2천 원/40kg 내외 예상

- 수급 상황을 고려한 'KREI 벼 가격예측 모형'과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 대상 조사결과, 금년 수확기 벼 매입 예상 가격은 현 거래가격 수준(6만 원 내외/40kg)보다 상승한 6만 2천 원 내외/40kg로 나타났다.
 - 이는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준인데, 2018년산 역계절진폭으로 인한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악화와 벼 가격과 쌀 판매가격간의 괴리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.

| 산지유통업체의 2019년산 벼 매입 예상 가격 |

단위: 천 원, %

	2018년산(A)	2019년산(B)	증감률(B/A)
평균	63	62	-1.1

주: 향후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수준에 따라 예상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.
 자료: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(11.6.~11.14.), KREI 벼 가격예측 모형

수확기 쌀 가격 강보합세 예상

- 향후 수확기 쌀 가격은 강보합세가 예상된다.
 - 2019년산 쌀 생산량 감소로 약 6만 톤 초과수요가 예상되며, 산지 벼 가격도 상승추세인 점 등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다만, 수발아 등으로 인한 품위 저하, 2018년산 역계절진폭 발생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 등은 상승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.

쌀 가격 계절진폭 발생 가능성 높을 전망

- 2019년산 쌀 가격은 공급부족 등의 영향으로 계절진폭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.
 - 2019년산 쌀 연간시장수요량 감소율(1.6%)을 고려하더라도 연간시장공급물량 감소폭(4.9%)이 더 커 이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더욱이 정부가 농가로부터 피해벼를 매입하고 있고, 전년보다 도정수율이 약 1%p 감소한 점 등은 공급부족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.
 - 또한, 벼 매입가격에 비해 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벼 가격 수준까지 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.
 - 이월된 구곡 재고가 많아 신곡 판매가 늦추어졌고, 일부 피해곡 등이 정상곡과 혼합되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점 등은 가격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.

| 2019년산 쌀 수급 추정 |

단위: 천 원, %

구분	2018년산 (확정, A)	2019년산 (전망, B)	차이	
			증감(B-A)	증감률(B/A)
생산량(A)	3,868	3,744	-124	-3.2
정부 순매입량(B)	300	350	50	16.7
연간시장공급물량(C=A-B)	3,568	3,394	-174	-4.9
연간시장수요량(D)	3,506	3,450	-56	-1.6
초과공급물량(E=C-D)	62	-56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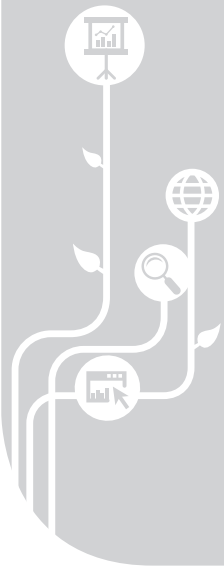
주 1) 정부 순매입량은 정부 매입량(공공비축미, 시장격리, APTERR)에서 방출량(신·구곡의 시장방출)을 제외하여 산출함.
 2) 정부 방출량 중, 밥쌀용TRQ 쌀과 군·관수용 및 공공시설에 판매되는 물량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함.
 3) 연간시장수요량은 신곡수요량에서 정부 순매입량을 제외하여 산출하였고, 신곡수요량은 농림부 내부자료를 활용함.

수확기 쌀 가격 강보합세 예상

- ▶ 2019년산 쌀 생산량 감소로 약 6만 톤 초과수요가 예상되고, 산지 벼 가격도 상승추세인 점 등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▶ 수발아 등으로 인한 품위 저하, 2018년산 역계절진폭 발생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 등은 상승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

2019년산 쌀 가격 계절진폭 발생 전망

- ▶ 2019년산 쌀 연간시장수요량 감소율(1.6%)을 고려하더라도 연간시장공급물량 감소폭(4.9%)이 더 커 이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
- ▶ 더욱이 정부가 농가로부터 피해벼를 매입하고 있고, 전년보다 도정수율이 약 1%p 감소한 점 등은 공급부족 상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



「쌀 관측」

4월호 예고(예정일자: 2020. 3. 27.)

내용 : 가격동향, 산지유통업체 수급동향, 수입쌀 시판동향, 벼 재배면적 전망, 단경기 가격 전망

「쌀 관측보」는 인터넷(<http://www.krei.re.kr>, <http://aglook.krei.re.kr>)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관측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「질의응답」을 선택한 후 「글쓰기」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<http://www.krei.re.kr> | TEL: 061) 820-2390 FAX: 061) 820-2410

담당자: 김종인(곡물관측팀장), 조남욱(쌀)

감 수: 국승용(농업관측본부장)

본 관측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수집·분석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통계청 통계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전망 결과는 앞으로의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